

“버려진 물건 가져오다 보니” 15평 주택에 쓰레기만 7톤

광주 남구청 ‘저장강박증 가구’ 환경개선사업 동행 취재

피아노 등 방마다 쓰레기...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위태
누울 공간조차 없이 화장실서 가스버너로 식사 해결
33년 택시운전 고씨,금전문제로 빚진 후 ‘수집’ 시작
자치구, 저장 강박증 가구 지원 ‘상담 등 도움 받아야’

“위폐...이건 버리는 거 아니에요. 버리면 안돼요”
광주시 남구 사직동의 한 주택에 살고 있는 고광수(63)씨가 10일 오전 내내 내뱉은 말이다.
고씨가 사는 주택의 현관문을 연 남구청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입에서 기겁에 가까운 탄식이 흘러나왔다. 온갖 쓰레기들이 방 곳곳에 짹짹 차 있었고 쓰레기더미가 금방이라도 문 밖으로 쏟아질 듯 위태로웠다. 누울 공간은 커녕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이날 남구 사직동 주택가에서 ‘저장 최대의 쓰레기 대청소 작전’이 펼쳐졌다.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청소는 저장강박증을 보이는 고씨의 대략 50㎡(15평) 남짓한 주택에서 하루종일 진행됐다.
남구청 직원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청소업체 직원 등 30여 명이 동원됐다. 이날 치워진 쓰레기 양은 어림잡아 7톤 가량이었다.
고씨는 남구청 복지정책과 직원사이에 나름 유명한 사람이었다. 33년간 법인택시를 몰면서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다 집에 보관했기 때문이다.
4년 전 백운동 아파트에 살때도 내부에 쓰레기를 쌓아뒀다가 이사를 하면서 모두 치웠지만, 이후에

도 지속적으로 쓰레기 수집을 포기하지 못했다.
주택으로 이사 후 3년째 쓰레기를 모아온 탓에 고씨는 화장실 귀퉁이에서 가스버너로 식사를 해결하고 다리를 못 뗄 정도의 안방에서 잠을 청하며 생활했다. 올해 여름에는 에어컨 리모콘을 쓰레기 더미에서 잃어버려 더위를 버텨내느라 곤욕을 치루기도 했다.
신용불량자인 고씨는 “과거 지인과의 금전 문제로 생긴 빚 때문에 어려운 생활을 해왔고, 그때부터 동네 헌옷 수거함과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함에서 물품을 하나씩 수집하기 시작하면서 이지경까지 됐다”고 했다.
특히 음악을 좋아한다는 고씨는 버려진 악기를 길거리에서 보면 그냥 지나칠수 없다고 한다. 결국 방 하나는 대부분 부서진 피아노, 우크렐라, 기타 등의 악기로 가득 찼다. 고씨는 “매번 집에 들어올 때마다 스스로를 꾸짖으면서도 길가에 보이는 보물들을 그냥 두고 올 수 없었다”고 했다.
이날 1.5t 차량을 동원해 5대 분량을 내다 버린 후야 ‘쓰레기와의 전투’가 어느정도 마무리 됐다. 하지만 고씨가 모은 쓰레기는 집밖 골목까지 가



광주시 남구청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10일 저장강박 의심 가구인 사직동 한 주택에서 각종 물건이 가득 찬 방(왼쪽)을 치우고 있다.



독차 있어 18일까지 청소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씨처럼 어떤 물건든 버리지 못해 쌓아두는 사람을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보고 있다. 저장강박은 일종의 강박장애로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해 악취와 오염으로 가족은 물론이고 이웃들까지 피해를 겪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광주 5개 자치구는 이런 저장강박 의심 세대를 돕고 있다. 북구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30가구를 지원했고, 광산구와 서구는 2020년도부터 각각 32가구와 31가구, 동구와 남구는 올해 처

음 시작해 각각 3가구를 지원했다.
남구는 지난 4월에는 차매를 겪고 있는 할머니의 집에 가득찬 음식물과 쓰레기를 치웠으며, 8월에는 쌓여있는 쓰레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는 집을 치우기도 했다.
단순히 집을 치워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민관이 힘을 모아 강박증을 완화하고 치료해 사회복지관을 돕는다. 대상자에 맞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역 자활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법률상담터, 행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나갈 예정이라는 것이 남구의 설

명이다.
깨끗해진 집 내부를 본 고씨는 “앞으로는 건강한 취미로 생활하면서 살게요”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장 강박장애는 불안증, 우울증 및 사회적 기능 이상과 관련이 있다”며 “평소에 물건에 대해 집착이 많고, 사소한 물건에도 가치를 부여하거나 물건을 버릴 때 심리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낀다면 주변의 가족들과 함께 상담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전남대병원, 경영평가 2년 연속 ‘국립대병원 1위’

전남대학교병원이 교육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국립대병원 중 1위를 기록했다.
10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국립대병원 14곳과 기타 공공기관 5곳 등 총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한 결과 전남대병원은 최고점인 85.60점(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전남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5곳이 A등급을 받았다.

전남대병원은 2015년부터 시작된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평가를 하지 않은 2019년을 제외하고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A등급을 받은 것이다.
전남대병원은 ‘미래 의료의 표준을 제시하는 뉴스마트 병원’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따뜻한 전문기 ▲존경받는 인재 ▲끊임없는 혁신 ▲사회적 책무 ▲신뢰받는 공정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천하고자 노력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A등급 달성, 연구·개발(R&D) 신규 수주 1000억원 및 새 병원 건립 재원 1조원 마련 등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안영근 병원장은 “전 직원들이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 준 덕분”이라며 “미래 의료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재건축 임시휴교’ 복구 운암동 경양초 내년 3월 재개교

경양초등학교가 옛 광주예술고 부지(광주시 북구 서강로 133)로 이전해 내년 3월 재개교한다.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휴교로 인해 운암초등학교, 동림초등학교 등으로 분산 배치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학 여부 조사, 공사 공정을 점검 등 본격적인 재개교 준비에 들어갔다.
또 오는 12월 1일 자로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사전에 겸임 발령해 개교 전 준비 사항들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경양초는 광주시 북구 운암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2020년 3월 이후 임시 휴교했었다.
다시 문을 여는 경양초등학교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면적 9063.7㎡ 규모로 건립해 총 39학급(일반 36학급, 특수 1학급, 병설유치원 2학급)으로 운영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무안공항, 24시간 ‘해외감염병신고센터’ 개소

키오스크 접수·신속항원검사 등
무안공항에 24시간 개방형 ‘해외감염병신고센터’가 문을 열었다.
국립목포검역소는 검역관리지역 등 신고의무 기준 및 조치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무안공항 출국장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외감염병신고센터는 국가별 감염병 정보 제공 및 감염병 의심환자 무안신고(키오스크) 접수, 해외 여행객 대상 쿼코드(Q-CODE) 교육 및 올바른 손씻기 체험, 희망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RAT) 지원 등 참여형으로 검역 감염병 예방업무를 수행한다.
감염병 의심증상자가 자발적으로 신고 할 수 있는 환경 등을 조성해 무안공항 내에 초기 검역 방어

망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박종하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장은 “센터-검역소 간 협업으로, 공항·항만 하수 검사 실시 및 모니터링 등 ‘하수(下水)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호남권 검역구역 감염병 병원체에 대한 감시를 다각화하겠다”면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운송수단(항공기, 선박)에 대해 입항 당일 공항·항만 하수를 채취하고, 코로나19 등 주요 감염병의 유전자 검출 검사를 실시해 감염병 조기 탐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충장로 명성 다시 한번

광주 동구 충장역사문화관 개관

광주시 동구는 도시재생 거점 공간에 ‘충장역사문화관’을 개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곳에는 영상을 통해 충장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충장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지도로 표현한 충장로의 역사, 상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오래된 가게’ 키워드로 변천사를 표현한 ‘포토존’ 등의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됐다.

충장로는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과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공간이자 호남 상권 중심지였으나 구도심 상권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다.
동구는 충장역사문화관 개관을 계기로 삼아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함께 제작 중인 ‘충장 역사웹툰’, 충장로 장인·지역 창작자들이 협업한 특화 상품 등을 도입해 콘텐츠로 만들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충장로가 다시 찾고 싶은 골목, 살아 숨 쉬는 호남 최대 상권의 옛 명성을 다시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11월 선착순 30분에 한하여 이장비 지원해드립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수목장*자연장 전문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 주말, 공휴일도 24시간 상담가능 〉

062) 464 - 9190